

평택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관련 특별재난지역 건의 성명 발표

평택시의회는 16일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에 위치한 관리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오염수 피해’ 관리천을 방문한 모습.

(사진=평택시의회)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원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훈 기자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발 벗고 나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

인천지역 내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인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 임춘원(국민의힘·남동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

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인수 교육의복 대표는 “직업계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대입 경쟁의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의 입시 경쟁 트랙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평자동차고 이재란 교장, 인천시교육청 정민영 장학사, 인천디자인고 박윤선 교사, 인천해양과학고 학부모 강진숙 씨, 인천주니어클럽 오승환 회장, 인천금융고 전준희 학생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란 교장은 “우리 사회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과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직업계고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희 학생은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 있다”며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직업계고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거 직업계고의 인

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미래 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중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좌장을 맡은 임춘원 의원은 “그동안 직업계고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했음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가 인천시 직업계고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중삼 기자

자유발언 통해 제안한 정책 ‘현실화’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종합거점센터 설치 발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민주당, 평택3·사진) 의원은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현옥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민서비스 종합거점센터’ 설

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계기로 시작했다. 본 5분 자유발언은 공공기관마다 시군별 설치하고 있는 대민지원 성격의 센터를 종합해 종합거점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웰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이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박승삼 경기도 경제실장, 배진기 기업육성과장, 심해인 일자리경제정책팀장, 전은숙 기업정책팀장, 손용석 골목경제정책팀장, 경제과학진흥원 정광용 균형기획본부장, 이



승 혁신성장연구단장, 김현창 팀장, 정구문 기회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에 중요도와 가치가 매우 높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진행된 착수 보고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분석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 도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 도출 △지역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 채널)구축 및 운영 방안 도출 등을 담았다.

서 의원은 연구계획을 경청한 후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집행부와 의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하며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거점센터 설치의 행정적 절감과 기업지원의 효과성을 위해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 후 서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성을 띠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창 기자

어르신들을 위한 도심속의 편안한 쉼터

은성효요양원은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신경쓰겠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고행복하기를...

쾌적하고 마음편한 노후를 위한 곳...
부천 최고의 요양시설

입소관련 상담문의 032-683-3030

ES 은성 효 요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202, 은성프라자 2층 은성효요양원(도당동 43-3)
홈페이지 : <http://www.eshyo.com>

의회 단신

재원확보 등 돌봄서비스 개선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주당, 시흥1) 부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돌봄 연구회’는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의 10.4%에 달하는 12세 이하 아동 인구에 대한 돌봄 정책 확대를 위해 마을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시작한 본 연구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최종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안전행정위원회의 전자영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세대

학교 산학협력단의 윤준영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한수경 아동돌봄팀장, 경기도교육청 배영하 돌봄교육 담당 장학관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도청 및 교육청의 아동돌봄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최종보고를 통해 경기도의 아동돌봄서비스별로 공통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교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운영 개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 개발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과 시설 확보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등의 공통 과제를 해결해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의원이 15일 고양·부천·수원·시흥·안산·인양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듣고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 지속 시행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재균(민주당, 평택2)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는 열린 고양·부천·수원·시흥·안산·인양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듣고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에서 시행하던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은 급박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 여성(40~60대)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연결하는 사업이나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9년동안 충분한 성과를 낸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의 중단위기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본 사업이 지속 추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인창 기자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은 △적합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던 시스템이 없어져 기업의 구인난이 가속화될 것이며 △새로운 구직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력단절 및 저소득 중장년 여성이 유료 직업알선소 개소로 내몰릴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그동안 여성일자리 사업 최전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취업지원인력 상담사 31명의 거취에 대해서도 건의하며 도 내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요청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의 중단위기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본 사업이 지속 추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인창 기자